

결세의 위인을 모시여 젊어지는 나라

《오늘의 행성은 참으로 우울해보인다.

해마다 닥쳐드는 자연재해와 끊임없이 지속되는 유행성병마는 이 행성에 생기와 활력을 빼앗고 로쇠와 침체를 더욱 몰아오고있다.

사회정치경제적혼잡과 무질서가 국가와 사회를 병들게 하고 급증하는 피난민사태는 지구상 곳곳에서 미래에 대한 절망과 비판의 한숨소리가 높아가게 하고있다.

그러나 동방의 나라 조선은 악동하는 폐기와 젊음에 넘쳐있다. 세기에 펼쳐지는 이 젊은 힘은 어디서 솟아나는 것인지... 이것은 어느 나라의 인터넷에 실린 글이다.

하다면 세상사람들을 놀래우며 끊임없이 악동하는 조선은 어떤 나라인가. * * 세상에 대한 강렬한 지향, 끊임없이 창조하려는 불같은 기질과 열정이야말로 젊음의 제일가는 징표라고 할 수 있다. 바로 이 땅에서는 어디 가나 이런 폐기와 정열, 생기와 활력을 느낄 수 있다. 너무도 놀라보게 달려오듯 너무도 눈부시게 빠른 속도로 비약하는 공화국이다. 분명 그 땅, 그 하늘이지만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또 다르며 래일은 무슨 사변이 일어날지 상상조차 하기 어렵게 젊어지고 솟아나는 나라. 새로운 혁신, 대담한 창조, 부단한 전진이 전인민적인 지향으로 된 이 땅에서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이 옛시절의것으로 되지 오래다. 지금 공화국에서는 1년이

면 강산이 변한다는 로동당시대의 새로운 유행어가 나돌고있다.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스키문화를 누리려보고 지경밖을 나다닐 때 이 나라 인민은 현대적인 마스킹스키장에서 초급, 중급, 고급주로를 따라 마음껏 눈길을 날린다.

수도 한복판에 바다물을 끌어다놓고 읍뎡어교예를 관람하는가 하면 옐도라도식 문수물놀이장에서 어른, 아이 할것없이 물보라속에 잠겨 행복에 웃고 떠든다.

다른 사회에서는 돈많은자들이 거들먹거리며 하는것로만 생각하는 승마운동도 공화국에서는 인민이 마음껏 즐기려고 부모없는 아이들

과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들도 국가의 보살핌속에 최상최대의 사랑과 대우를 받으면서 살고있다.

발걸닿는 곳마다 인민사랑의 기념비적창조물들이고 듣는 소식마다 사회주의문명을 구가하는 기쁨의 소리인데 얼마전에는 또 련포담에 인민을 위한 대규모모실바다가 펼쳐져 세상을 다시금 놀래웠다.

중이자우의 설계도가 땅위에 건축물로 일떠서는 속도 또한 세상을 놀래우는 기적 같은 속도이다.

평양에서는 평범한 로동자, 사무원, 근로자들을 하느님같이 떠올린 현대적인 고급주택들이 한해에 1만세대씩 일

터서는가 하면 이번에 세상엔 보란듯이 건설된 거대한 련포농장도 불과 230여 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건설된것이다.

오늘 공화국은 세상을 놀래운 천리마의 속도, 평양속도, 80년대속도, 회천속도를 통가하는 새로운 조선속도로 내달리고있다.

젊음은 두려운것을 모르는 담력과 배짱, 왕성한 힘의 대명사이다.

천하를 호령하는 공화국의 담력과 배짱은 백두산의 메우리처럼 역세고 강하며 그 어떤 침략세력도 단호히 물리칠 수 있는 강대한 힘에 바탕을 둔것이다.

적대세력들이 공화국에 대

한 《붕괴》알상기도를 공공연히 드러내고 제재압박도수를 높여도 굴할줄 모르는 신념과 강인담대함으로 모든 난관을 박차며 승리의 힘찬 보복탄을 내걸고있는 이 땅의 현실을 보고 세인은 찬탄의 목소리를 높이고있다.

《김정은시대에 조선의 힘은 최대로 강해졌다.

지금 조선의 존엄과 기상은 우주만리에 닿아있다. 오늘날 지구는 조신을 축으로 돌고있다.》

《조선에는 조국보위도 조국건설도 (단숨에)의 정신으로 할 수 있는 만능의 자질과 능력을 겸비한 최정예강군이 있다. 이런 군대를 가진 조선의 힘을 당할자 이

세상에 없다.》

젊음은 밝은 진도와 미래로 하여 아름다운것이다. 오늘 공화국을 불러 청년조국이라고 하는것은 세상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양양한 미래를 앞당겨 펼쳐가고있기 때문이다.

세월의 년륜이 감길수록 더욱 젊어지고 기운이 넘쳐나는 나라가 바로 공화국이다. 자기 힘, 자기 기술로 이루어진 문명과 발전의 창조물들이 이 땅위에 아름다운 미래의 설계도를 펼쳐놓는다. 오늘날만 아니라 먼 후날에도 손색이 없을 인민을 위한 무수한 창조물들.

하늘에서 나는 비행기도, 땅위를 누비는 궤도전차와

무궤도전차도, 지하에서 달리는 지하철도 모두 자체의 힘과 지혜, 기술로 만든 주체의 넓이 깃들고 자부심이 넘치는 재부들이다.

예술공연무대에서도 끊임없이 문명개화발전하는 이 나라 인민의 아름다고 고상한 지향과 요구를 느낄 수 있고 세계적수준의 국방발전전람회에서는 더욱더 강대해질이 나라의 무궁무진한 국력을 엿볼 수 있다.

하기에 공화국인민은 《알맞은 자, 멋진 래일 광휘로운 우리의 래일, 눈앞에 기다리는 행복인데 우리 왜 못이루랴》고 노래하며 아름다운 미래를 향해 힘차게 전진하고있는것이다.

국가와 젊음은 로속하고 세련된 정치에 기인된다. 지금 공화국이 자기 력사에서 가장 활력에 넘친 청년조국을 구가하고있는것은 젊세 위인인 김정은이 사

방식, 비범한 천품에 대해 세계어른들은 경탄과 흠모의 목소리를 높이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령도자의 정치는 모든 분야에 막힘이 없는 다면박식하고 뛰어난 정치이다.》

《문무에 도통하고 일상천리로 풀어나가는 리사형의 정치가 김정은령도자를 모신 공화국의 앞길은 밝다. 리론과 실천력이 완벽한 조화를 이룬 위대한 김정은정치방식 만세!》

《김정은령도자의 정치야말로 국가와 사회에 합찬 활력을 주는 원동력이고 추진력이다. 진할줄 모르는 공화국의 젊고 역센 힘은 령도자의 젊음과 용맹, 신비의 정치에 그 바탕을 두고있다.》

부러가든든하고 가지가 왕성하며 즐거이차게 뻗어오르는 거목은 그 무성한 새순과 함께 더욱 역세게 성장하기 마련이다. * * ... 악동하는 젊음으로 비약하는 그 모양. 역센 기상 하늘에 닿은 이 조선 ... 공화국의 남녀로소 누구나 즐겨 부르는 《조국찬가》의 한구절이다. 이 땅에선 모든 꿈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안고 끝없이 비약하고 번영하는 공화국의 모습을 시사해주는 명목이다. 청춘의 생기와 활력에 넘쳐 힘차게 내달리는 공화국의 앞길에는 영원히 승리과 기적, 번영의 밝은 미래가 펼쳐져있다. 본사기자 리경월



후대들을 위해 억만자루의 품을 들인다

이 땅 어디서나 아이들의 행복넘친 웃음소리가 울려 퍼진다.

세상에 부럼없이 무럭무럭 자라나는 아이들의 밝은 모습에서 사회주의조선의 악동하는 생기와 활력을 한껏 느낄 수 있다.

아이들의 행복에 겨운 웃음소리를 들으며 참으로 생각도 깊어지는 이 나라 인민들이다.

이제는 어렵고 부족함이 많지만 자라나는 후대들을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것이 공화국의 불변의 정책이다.

지난해 6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전원회의에서 하시던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절절한 음성을 지금도 사람들은 잊지 못하고있다.

조국의 미래엔 어린이들을 튼튼하게 잘 키우는것보다 더 중대한 혁명사업은 없으며 수천수만금을 들여서라도 보다 개선된 양육조건을 지어주는것은 우리 당과 국가의 최우선정책이고 최고의

숙원이라고, 힘겨울수록 어린이들에게 정성을 더 쏟아 붓고 그 사랑의 힘으로 공산주의미래를 향하여 완강하게 나아가는것이 우리 혁명의 전진방식, 발전방식으로 되어야 한다고, 이 땅에 태어나는 아이들, 자라나는 후대들이 어려서부터 좋은 환경에서 잘 먹고 무럭무럭 자라나면 앞으로 20년, 30년 후에는 그만큼 우리 사회에 더욱더 악동하는 생기와 활력이 넘치게 되고 공화국의 국력이 장성강화되게 될것이라고 그리고 뜨겁게 말씀하시던 경애하는 원수님.

못잊을 그날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아이들의 성장 발육에서 타아소, 유치원시기가 제일 중요한 년령이라고 하시면서 국가적부담으로 전국의 어린이들에게 젓제품을 비롯한 영양식품을 공급하는것을 조선로동당의 정책으로 수립할데 대하여 언급하시고 그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과업과 방도들을 제시하시였다.

절세위인의 그 숭고한 뜻을 받들어 공화국은 올해 2월 초에 진행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6차회의에서 어린이 영양식품의 생산 및 공급체계를 정연하게 세우고 모든 어린이들에게 젓제품을 비롯한 영양식품을 무상으로 정상적으로 공급하며 가장 훌륭한 양육조건을 보장하도록 하는것을 법적으로 고착하도록 하고 그 실행을 위해 강하게 투쟁하고있다.

이로부터 자식 하나를 키우는데 오만자루의 품이 든다고 하였다. 그러나 공화국에서는 태어나는 아이들, 자라나는 후대들을 위해 천만자루, 억만자루의 품을 아낌없이 들이고있다.

결코 말할수 없는 일이 아니다. 또 결실한다고 쉽게 실천할수 있는 일도 아니다. 지구상에 존재하고있는 많은 나라들에서 후대육성사업에 대해 떠돌고있지만 공화국처럼 후대들을 위해 가장 훌륭한 육아정책을 내오고 법화하여 강력히 실시하고있는 나라는 찾아볼수 없다. 장

구한 인류발전사를 더듬어보아도 어린이를 키우는 문제는 자식을 낳은 어머니들과 한가정에 국한된것으로 되어왔지만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진다는것은 도저히 생각지도 못한 일로 되어왔다.

하지만 공화국은 전국의 어린이들을 국가가 모두 맡아서 잘 먹이고 잘 키우는것을 정책화, 법화하여 강력히 실시하고있으며 더우기 나라가 어려움을 겪는 시기에도 젓제품을 비롯한 영양식품을 어린이들에게 무상으로 공급해주고있다.

후대들을 위해서 국가가 당하는 손실은 손실이 아니며 어린이들을 위해 더 많은 자금이 지출될수록 조국의 미래가 밝아진다는것이 바로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이다.

지금도 온 나라 인민들은 것처럼 존엄했던 지난 5월에 새겨진 그 하나의 사랑의 이야기가 돌고돌고 전해지고있다.

돌발적인 비상방역상황으로 나라에 최악의 위기가 도래했던 그때 평양어린이식료

품공장은 뜻밖의 긴급전투에 진입하게 되었다.

한밤중에 예기젓가루, 암가루공급전투가 긴급조직되었던것이다.

사연은 이러했다. 그날 상업성의 책임일군은 상상밖의 충격적인 소식에 접하게 되었다. 인민사수의 최전방에서 한시도 편히 쉬지 못하고 불면불휴의 로고를 바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예기젓가루, 암가루공급문제까지 세심히 관심해주시였다

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예기젓가루, 암가루공급문제까지 세심히 관심해주시였다

그런데 나라에 조성된 엄중한 방역위기로 하여 누구보다 크나큰 심혈과 로고를 바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예기젓가루, 암가루공급문제까지 세심히 관심해주시였다

이렇게 되어 건국 이래의 대동란이라고 말할수 있는 엄중한 시기에 사랑의 예기젓가루, 암가루를 실은 차들이 온 나라 방방곡곡으로 달리는 눈물겨운 화룡들이 펼쳐지게 되었다.

진정 혁명은 후대들을 위한 투쟁이며 이 땅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 높이 울려 퍼져야 한다는 숭고한 후대관을 지니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따사로운 손길이 있어 시련은 곱씹여도 자라나는 아이들의 얼굴에선 밝은 웃음이 떠날 줄 모른다.

지금 공화국의 가는 곳마다에서 조선로동당의 육아정책을 받들고 젓제품생산의 활성화를 위한 물질기술적토대를 더욱 튼튼히 하여 젓제품의 질을 높이고 가지수를 늘여나가는 경쟁열풍도 세차게 일어나고있다.

그속에서 아이들의 행복의 웃음소리, 노래소리 더욱 높아가고 공화국의 더 밝고 창찬한 미래가 펼쳐지고있다. 본사기자 유금주

제 일 좋은 이름

인민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고 모든 것이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공화국에는 인민이라는 두 글자와 더불어 빛나는 기념비적창조물들이 수없이 많다. 그중에는 트라이민유원지도 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대로 풍라도를 인민을 위한 훌륭한 문화정식생활기지로 꾸리시러 크나큰 심혈과 로고를 바쳐가시던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완공단계에 이른 트라이민유원지건설장을 찾으신 주제101(2012)년 4월 어느날 이었다.

건설현장에는 세차게 불어치는 바람으로 하여 온몸 먼지가 날리고있었다.

하지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오랜 시간 건설장에는 여러곳을 돌아보시며 인민들이 이곳에서 사소한 불편도 없이 즐거운 휴식의 한때를 보낼수 있게 최상의 수준으로 꾸리도록 세심히 지도해주시였다.

이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풍라도 지구에 종합적으로 이름을 달아야 할것이라고, 그러나 유원지명칭에서 인민이라는 두 글자를 빼놓으면 절대로 안된다고 하시면서 한평생 인민을 위하여 로고를 바친 수령님과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놓고보아도 트라이민유원지라고 하는것이 제일 좋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위민철전의 길에서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보건산소 공장건설현장을 찾으시였던 그날은 몇해 전 5월의 어느 일요일이었다.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의료용 산소생산을 위해 공장건설을 맡기하시던 일요일의 휴식마저도 바쳐가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였다.

이날 경애하는 그이를 수행한 일꾼들은 인민을 위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과 정의 세계가 얼마나 크나큰것인가를 다시금 새겨안게 되었다.

건설장을 돌아보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벌써 풍광의 체모가 안겨온다고 못내 만족해하시며 일꾼들에게 보건산소공장을 세계에 둘도 없는 공장으로 건설하자고 절절히 말씀하시였다. 본사기자

이윽고 공장건설과 운영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하여 일일이 가르쳐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사회주의보건제도의 의료상해력이 인민들에게 더 잘 미치도록 하려면 보건부분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보건산소공장과 같은 현대적인 의료용 산소생산기지를 나라의 여러 지역에 일떠세울수 있도록 은정깊은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인민의 행복을 위함이라면 저 하늘의 별이라도 따오고 돌우에도 꽃을 피우야 한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이 어린 귀중한 가르치심이었다. 본사기자

